

##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의 실적과 특징

선종인 · 한국은행 해외 투자 담당



C  
I  
A  
L  
F  
E  
A  
T  
U  
R  
E

### 해외 직접 투자의 개황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68년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을 위한 투자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왔으나, 만능적인 국제 수지 적자로 인한 투자 여력이 없어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수준이 미미하였다.

그러나 국제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8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의 수입 규제 강화, 원화 절상, 임금 및 지가 상승, 노사 분규 등 국내 생산 및 수출 여건 약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및 전자 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정보 통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대형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1995년 11월 말 현재 해외 직접 투자 잔액은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으며, 건당 투자 잔액도 1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일본(4,635억 달러: 1994년 말 기준)은 물론 대만(166억 달러: 1994년 말 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GDP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잔액의 비율에 있어서도 일본(10.1%), 대만(6.8%)에 비해 크게 열악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시각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적인 해외 진출에 대하여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창출 효과의 해외 이전 등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우려와 함께 투자 재원을 주로 해외에서 조달

함에 따른 대외 채무 증가와 관련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과 개선되어야 할 점 및 해외 투자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1〉 주요 해외 직접 투자 실적 추이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sup>1)</sup>
투자 잔액(백만 달러)	140	484	2,336	9,956
투자 건수(건)	287	443	1,243	5,175
간접 투자 금액(백만 달러)	0.49	1.09	1.88	1.92
투자 잔액/GDP(%)	0.2	0.5	0.9	2.0 <sup>2)</sup>

자료 : 1) 1996년 11월 말 기준 2) 1994년 기준

##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

### 1) 제조업 중심 투자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당시의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환경에 따라 시대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70년대 초반까지는 임업 부문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업 부문의 투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제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임업 투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합판용 목재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하여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투자 잔액의 50% 이상을 점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자원 보유국의 산림 자원에 대한 Nationalism 강화에 따른 투자 자체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업 투자는 70년대 2차리에 걸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자 원유, 철광석, 석탄 등의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80년대 중반에는 전체 투자 잔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여타 업종의 투자 확대로 투자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80년대 전반까지 투자 잔액의 20% 미만에 머물렀으나 80년대 후반 들어 임금 및 지가 상승, 원화 절상, 선진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국내에서의 제조업 영위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데다 정부의 해외 투자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자 업계를 중심으로 한 대형 투자가 이어지면서 투자 규모는 크게 늘어나 전체 투자 잔액에 대한 비중이 1985년 말 19.2%에서 1995년 11월 말 58.3%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내에서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업종 등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비용 절감 목적의 투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업종 등 무역 장벽의 우회를 겨냥한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역업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가 허용된 투자 초창기에는 종합무역상사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국가간 경제 교류의 확대로 제조 업체의 해외 진출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현지 판매망 확충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투자 잔액에 대한 비중이 1985년 말 14.8%에서 1995년 11월 말 19.5%로 증가하였다.

업종별 투자 구조를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을 1994년 말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27.8%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반면 부동산업(15.3%)과 서비스업(12.3%)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첨단 주력 수출 산업의 해외 투자는 현지 법인화 자본재 수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래 국내에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현지 법인에 의한 해외 수출 시장의 잠식은 물론 동 제품의 국내로 역수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선도 산업의 개발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표2〉 부문별 해외 직접 투자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85년	1989년	1993년	1995년
투자액	1.5(1.1)	171.2(35.4)	446.7(19.1)	700.1(7.0)
업종별				
제조업	22.4(16.0)	62.9(13.0)	77.6(3.3)	78.1(0.8)
서비스업	23.9(17.0)	92.8(19.2)	1,061.4(45.4)	5,803.6(58.3)
부동산업	27.8(19.8)	71.8(14.8)	410.3(17.6)	1,984.7(19.9)
기타	64.7(46.1)	85.2(17.6)	339.7(14.5)	1,389.3(14.0)
투자기업				
제조업	50.7(36.1)	119.9(24.8)	714.9(30.6)	4,397.1(44.2)
서비스업	32.8(23.4)	153.2(31.7)	1,150.4(47.3)	3,119.6(31.3)
부동산업	5.1(3.6)	60.1(12.4)	151.8(6.5)	1,516.6(15.2)
기타	51.7(36.8)	150.7(31.1)	318.6(13.6)	922.5(9.3)
투자기업 100% 소유	10.5(7.5)	208.8(43.1)	1,217.0(52.1)	5,714.6(57.4)
투자기업 50% 이상 소유	92.3(65.8)	196.1(40.6)	826.0(35.4)	3,136.1(31.5)
투자기업 50% 미만 소유	37.5(26.7)	79.0(16.3)	292.7(12.5)	1,105.1(11.1)
투자기업 100%	62.4(44.5)	323.4(66.8)	1,407.8(60.3)	5,545.4(55.7)
투자기업 50~99%	39.7(28.3)	53.5(11.1)	643.4(27.5)	3,056.4(30.7)
투자기업 50% 미만	38.2(27.2)	107.0(22.1)	284.5(12.2)	1,354.0(13.6)

주: 1) 1995년 11월 말 기준 2) ( ) 내는 구성비(%) 3) 위 수치는 잔액 기준임

## 2) 동남아, 북미 지역 집중 투자

해외 직접 투자의 추이를 지역별로 보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80년대 이전까지는 자원 개발을 위한 동남아 지역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80년대 들어서는 북미 지역에 대한 무역 마찰 회피형 투자가 크게 증

가하였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확대된 1988년 이후에는 중국 투자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의 투자가 다시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1995년 11월 말 75.5%로 편중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우선, 동남아 투자는 70년대에는 임업, 광업 등 자원 개발을 위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되어 해외 투자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최근 들어서는 조립 금속, 기계 장비 부문에 대한 거액 투자가 가세하면서 투자 비중이 급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말 對동남아 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 잔액의 44.2%에 이르렀다.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종합무역상사를 위시한 대기업들의 수출입 창구로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다가 80년대 들어 NAFTA 결성에 대처한 무역 장벽의 우회 및 시장 선점 목적을 한 무역업과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여 전체 투자 잔액에 대한 비중이 한 때 50%대에 이르렀다.

90년대에 들어서도 첨단 기술의 도입을 겨냥한 자동차, 철강, 전기 전자 등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 회사들의 대형 반도체 투자와 아울러 정보 통신 등 첨단 산업 부문에 대한 인수, 합병(M&A)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투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유럽 통합 진전에 대처한 시장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CIS, 동구 등 시장 경제 체제 전환국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및 투자 유인 제공 등으로 높은 증가를 보임에 따라 투자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 구조를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80년대 이후 북미 지역의 투자가 계속 선두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투자 잔액에 대한 비중이 1994년 말 43.4%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반면,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3.6%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고 유럽 지역의 투자 비중은 15.2%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동종 업체의 동일 지역에 대한 중복 투자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내 업체간 현지 인력 확보 경쟁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됨으로 투자 지역에 대한 사전 자율 조정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의 차별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 3) 대형 투자 증가

투자 규모별 해외 직접 투자의 추이를 보면, 건당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액 투자의 비중이 1980년에는 7.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나 1995년 11월 말 57.4%에 이른 반면 건당 100만 달러

〈표3〉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법인의 경영 성과

단위 : 백만 달러, %

		1992년	1993년	1994년
성장성	매출액	5,978	7,560	10,522
	총자산	5,354	6,165	8,039
수익성	매출액 영업 이익률	2.1	0.2	1.1
	매출액 순이익률	-4.6	-1.6	0.2
안정성	자기 자본 비율	4.9	6.7	11.9
	부채 비율	1,945.3	1,386.1	722.0

이하 소액 투자의 비중은 11.1%로서 80년대 초의 약 30%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투자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당 평균 투자 잔액도

꾸준히 확대되어 1980년 말 50만 달러에서 일본의 1994년 말 6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1995년 11월 말 19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투자 규모의 대형화 현상은 그동안 투자 허가 대상 금액이 계속 확대되어온 데다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항들이 꾸준히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건당 투자 잔액을 1995년 11월 말 기준으로 업종별로 보면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광업(1,320만 달러), 임업(430만 달러)과 제조업 중 1차 금속, 조립 금속 및 기계 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수산업(70만 달러), 운수 보관업(100만 달러)과 제조업 중 의복 섬유, 신발 가죽 업종은 평균 이하의 투자 규모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북미와 유럽의 건당 투자 잔액이 400 달러를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노동 비용 절약형 투자가 주류인 동남아 지역은 120만 달러로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한편, 투자 금액이 거액화함에 따라 해외 투자 사업의 성패가 국내 투자 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해외 투자 사업 결정시에는 현지 투자 환경 조사, 사업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투자 자금의 단계별 투입, 현지 법인의 관리 능력 제고 등이 요청되고 있다.

#### 4) 단독 투자 선호

투자자의 해외 직접 투자 비율을 보면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영 참여 관심도를 반영하여 투자 초창기 이래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995년 11월 말 현재 100% 단독 투자가 전체 투자의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비율 50% 이상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86.4%에 달하고 있다.

투자 금액과 투자 비율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소액 투자가 주로 100% 전액 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규모 투자는 대체로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자본 자유화가 보다 진전된 북미, 유럽에서의 단독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해외 투자 사업의 성과


해외에 진출한 현지 법인의 경영 성과는 현지 법인의 영업 활동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데다 현지 법인의 경영 행태가 대부분 모기업의 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재무 제표 등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현지 법인의 투자 수익률(배당금/해외 직접 투자 잔액)이 1994년 1.3%로 미국(8.9%), 일본(3.3%) 등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개척, 현지 생산 거점 확보, 선진 기술 도입 등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국가간 경제 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체 해외 투자 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3,000만 달러 이상 현지 법인을 기준으로 할 때, 최근 몇년간 경영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권의 경기 회복과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 등 해외 투자 사업의 경영 환경이 전체적으로 호전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매출액에 있어서는 3,000만 달러 이상 투자 법인 수의 증가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업종의 두드러진 신장으로 1994년 중 1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익성은 매출액이 큰 폭의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그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1993년 중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매출액 순이익률도 1994년 중 흑자로 돌아서, 투자 수익에 의한 현재 재투자율과 국내 회수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한 구조 개선 유도<sup>1)</sup> 등으로 자기 자본 비율 및 부채 비율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 Thin Capitalization Act(미국 세법 제 585조):

총부채 규모가 자본의 1.5 배를 초과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사납이사 중 일정 범위까지만 손비로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